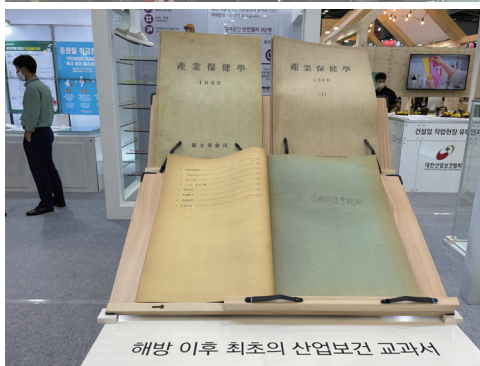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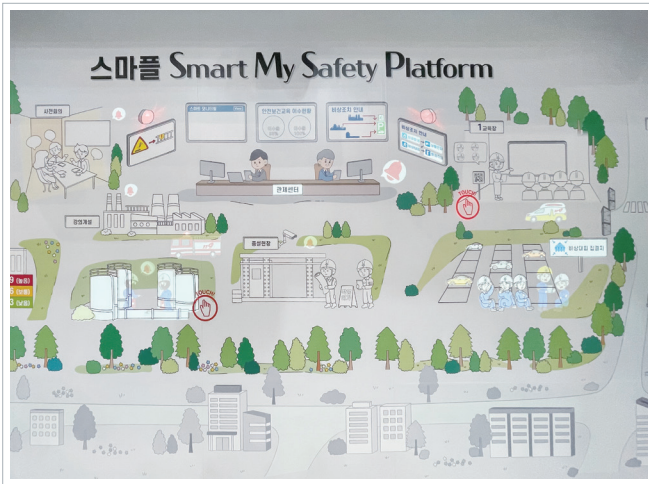
같이 보기

: 제39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

미래 산업안전보건의 트렌드를 읽자! “제39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글 복해용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사내기자





66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솔루션 제품들과 법률컨설팅, 교육에 관한 전시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KT와 LG U+는 기존 통신네트워크에 디지털 플랫폼을 연결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산업안전서비스를 선보였다.

99

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안전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제39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 2022)가 7월 4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 180개 사의 기업들이 참여해 총 2만여 점의 제품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지난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들의 이목이 크게 집중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부스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솔루션 제품들과 법률컨설팅, 교육에 관한 전시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KT와 LG U+는 기존 통신 네트워크에 디지털 플랫폼을 연결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산업안전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위험을 감지하는 AI 가상펜스,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IoT 안전모, 긴급소방안전 DX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아직 생소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들에게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부스들도 많이 입점하였다. 그 중 대한산업안전협회(KISA)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안전협회는 컨설팅 및 교육 분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어필

하면서 스마트(Smart My Safety Platform)을 이용한 위기관리체계를 선보였다. 해당 전시를 보며 지난 '월간 『산업보건』 6월호'의 CEO 메시지에서 백헌기 회장이 왜 그렇게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목소리를 높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밖에 가상공간플랫폼을 이용한 VR 안전교육프로그램, 메타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공개되어 전시회를 관람하는 이들에게 더욱 많은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올해 대한산업보건협회(KIHA)는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구호 아래 60여 년의 산업안전보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과 오송 신사옥 미니어처를 함께 전시하여 협회의 역사와 비전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멀리 일산까지 와서 고생하신 본부 대외홍보팀의 숨은 노고가 보이는 전시회였다.

이번 제39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를 관람하며 향후 진행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방향성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니즈(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신사업을 구상하지 못하면 언젠가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